

濟州島木物調查研究

—櫃와 남방애를 中心으로—

文 基 善
梁 昌 普

I

木物은 곧 나무로 만든 온갖 道具를 뜻한다. 一般庶民들이 日常生活의 必要性으로 말미암아 製作 傳承하며 使用되는 民具의 一種이다.

民具는 民間生活 到處에 흩어져 있어 日常生活에서 너무나 親近하게 대하고 있으므로 그 意義나 價値를 問題視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다. 다만, 民具는 民俗資料의 一部요 文化財의 一部이며 近者 이 文化財에 대한 關心과 熱意가 急激히 높아져 감에 따라 木物에 대한 認識 또한 날로 새로워져 감은 썩 반가운 일이다.

나날이 高調되는 一般의 關心과 熱意에 比하여 韓國의 경우 民具全般에 대한 体系的 研究는 이제야 部分的으로 試圖되어 出帆하려는 제제이니 晚時之嘆을 禁할 筈 없다. 民具의 種類는 너무나 廣範하여, 民具種類를 대상한다 하더라도 種類, 材料(素材), 工程, 製作道具, 規格, 形態, 分布, 機能, 由來 및 變遷, 補助道具, 機能保有者, 他地方 或은 他國과의 比較 研究等 그 調査 研究項目 또한 虛多하다.

勿論 이들 調査 研究項目 全般에 걸쳐 最善을 다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調査 研究를 통해서 傳統文化의 基盤의 特質을 밝혀내는 데 力點이 두어졌어야 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人類가 人類다운 理由의 하나는 道具를 製作하고 이를 使用할 줄 아는 能力을 지녔기 때문이요, 모든 民具는 觀賞의 藝術作品이 아니라, 生活上 必要에서 이루어진 民間叡智의 結晶体이기 때문이다.

民具는 곧 우리 先祖들로부터 日常生活의 必要性으로 말미암아 創造되고 改良되어 온 생활한 實用道具이기 때문, 그것이 實際生活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機能을 다 하는가에 따른 그 實用價値와 背面에 깔린 生活樣式과 生活感情을 抽出해 내는 데 窮極의 意義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民具 하나 하나의 形態의 意匠의 差異는 그 地域의 地理, 歷史, 社會, 生業, 慣習, 文化, 宗教의 特性과 直結되는 것이며 文化傳播의 樣相도 推察할 수 있는 것이다.

2 논문집

말하자면, 한 地域에 대한 民具의 調査 研究를 통하여 그 地域 文化類型의 片貌와 地域民의 意識世界를 살필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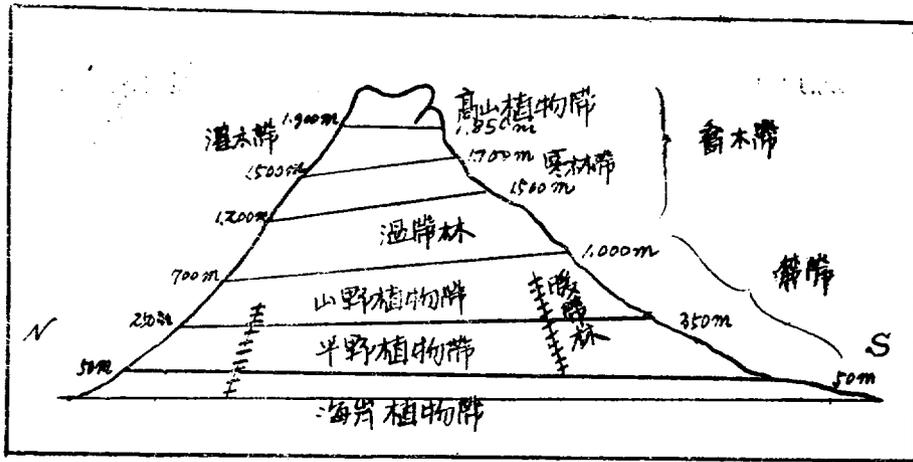
韓本土와 隔離된 채, 地理, 歷史, 社會的 特異性을 지니고 있는 濟州島의 民具 가운데 木物一般을 概觀하는 한편 濟州櫃와 <남방애>를 中心으로 이를 調査 考究하러 한다. 濟州櫃와 <남방애>를 特히 問題視하는 理由는 民家마다 갖추었던 必須的인 木物일 뿐더러 近來 木物 愛護家들의 蒐集붐을 타서 多量 流出되고 消滅直前에 놓였기 때문이다. 濟州櫃와 <남방애>의 調査 研究를 다함으로써 島民의 心意와 濟州島 基層文化의 한 類型까지 밝혀 보려 한다.

II

1) 木物의 概觀

木物의 材料...1950m 높이의 單純孤立峯인 漢拏山은 크게 圓錐形을 이루어 山頂四面의 傾斜度는 南北이 甚하고 亞스피테型 火山島로서 東西가 긴 橢圓形인 섬이다.

濟州島 植物 分布 圖



(圖面 1)

圖面 I 과 같이 濟州島의 植物分布를 살펴 보면 海邊에서 50m 높이까지는 砂質土壤이어서 保濕力이 不足한데다 늘 바람이 불어 水分發散量이 많으므로 두터운 上皮層을 지닌 多肉性 海岸植物地帶이다.

다음은 耕作地와 牧野地로서 山南에서는 50~1,000m, 山北에서는 50~700m까지를 말해

며 이 山麓帶를 平野植物帶와 山野植物帶로 區分하여 河川邊이나 急傾斜面, 岩壁附近等 耕作地나 牧場으로 利用할 수 없는 곳에 殘存하는 숲을 暖帶地區라 한다.

이 위 地帶에는 개서나무, 서나무, 소리나무, 졸참나무등 이 主로 生植하고 이를 溫帶林地區라 하여 山南에서는 1,000~1,500m, 山北에서는 700~1,200까지를 말한다.

寒帶林은 山北斜面 1,200~1,500m 사이를 말하고 이 사이에는 마가목, 정금나무, 분지나무, 보리수나무, 산사나무등의 灌木이 있으며 이 寒帶林을 지나 北斜面에서 1,900m까지는 구상나무의 群林을 이루고 있다.

南斜面에는 구상나무, 주목, 고채목이 드물게 자라고 있고 그 밑으로 喬木과 灌木帶의 境界가 明確치 않고 주목, 개비자나무, 산딸나무 등의 수가 적어 지고 그 發育도 不良해 지면서 珉진달래, 산철죽 등의 自生하는 廣大한 高原을 灌木帶라 하여 南斜面 1,700~1,850m까지를 말하고 그 밑에 1,500m까지는 寒帶林地帶라 한다.

이렇게 高山地帶 植物相은 진달래나무 사이에 섬매자나무, 들쪽나무, 제주산버들 등이 點在하고 北斜面에는 구상나무로 된 寒帶林 사이에 灌木帶가 點在하여 고채목, 진달래무리, 들쪽나무, 시러미, 잇거자수, 제주산버들, 섬매자나무 등이 섞이어 자라고 있고 斷崖에는 畸形을 한 눈향나무, 주목 등이 많아 高山植物帶는 大部分 寒帶林과 灌木林이 서로 混在되어 있다.”

以上과 같이 濟州島는 植物의 寶庫로 周知되어 良木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고 成均館 典籍 金尙憲은 西紀1601年 9月 25日 濟州民의 撫慰를 爲하여 山神祭를 마치고 漢拏山 頂上에 올라 原始叢林을 보고 다음과 같이 記述하였다.

「漢拏山 峻極中天 雄據數百餘里 山嶺絕壁如屏 高可數百餘丈 壁上有經數百步 池邊沙磧舖有 叢竹 雜以紫乳香木 蔓延至壁下珍木則零陵香, 山茶, 山柚, 鹿角, 松子, 榧子, 側柏, 黃栢, 柘栢, 栲, 赤栗, 加時栗(兩木皆實如橡栗 味甘不苦, 州人捨聚藏置 以備救荒), 橡實, 二年木等 雜卉周包茂密 交柯陰翳 四時長青 人跡通」¹⁾이라 하여 至今으로부터 近四百年前의 無數한 珍木品種들이 到處에서 自生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耽羅志의 土產條가 歲貢條에 記述된 바에 依하면 「土產條…檜木(木有腦香氣) 蔓香木(生漢拏山上 形如紫莖), 青楊(樹如楊 葉如眞松而細嫩), 金栢木(葉如栲 皮有刺 可作琴…), 「歲貢條…繕工監 榧子板 十六葉…」²⁾이란 文獻으로 보아 土產條와 歲貢條에 밝혀진 木材等은 進上되었을 것이고 高麗의 藩國時代에도 造船用, 佛寺建築用 木材等으로 貢獻하였던 點은 珍貴한 良木材가 輸出되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鄉土 木物의 主軸이 되고 있는 材料들은 <굴무기>(槐木), <사오기>(櫻木), 榧

1) 朴萬奎 ; 漢拏山の 植物, 漢拏山 및 紅島, 文化公報部, 1968

2) 金尙憲 ; 南槎錄. 卷之二, 1633

3) 李元鎮 ; 耽羅志, 歲貢條, 土產條, 1653

4 논문집

자木, <노가리>(朱木) <꼭나무>(팽나무), <조로기나무>(山柚子木), 가시나무, 苦棟木, 녹나무, 서나무, 冬栢木, 松木等 여러 가지가 있고 特別 櫃子木, 槐木, 櫻木(黑, 白, 紅), 山柚子木, 朱木等은 槿域에서 最上品 家具材가 아닌가 한다.

材料的 入手……濟州市 健入洞1421 文昌權(70歲)에 依하면 部落 隣近 住民 相互間에 協同 契를 組織하고 周邊 山野의 藪林에서 優秀巨木을 選定하고 吉日을 擇하여 祭를 올린 다음 伐採한다.

이 伐木된 나무는 樹形과 支幹의 生김새와 用途에 따라 適當한 길이로 切斷하여 <재자리>(도끼形에 긴 뿌리가 달림)로 木皮를 다듬고 運搬하기에 容易하게 한 다음 作業場으로 옮겨 진다.

옮겨진 木材는 簡素한 作業台 위에 얹어 지고 <겨쇠>로 단단히 着定시켜 먹술 線에 따라 大鋸나 四人用, 二人用 <줄톱>으로 角材나 板材로 製材하여 櫃를 비롯한 여러가지 家具材및 建築材를 마련 하였다. (1970. 5 涯月面 令德里에서 寫眞1)



(寫眞 1)

이 材料는 자귀 질 마감 程度의 粗野한 感觸으로 表面을 整理하여 木器를 製作하였으므로 투박하여 古拙質朴한 木物이 十中七, 八이고 대패를 使用하여 表面도 매끄럽고 이음새 네귀물림도 精巧하게 만든 匠人的 家具는 매우 적은 편이다.

2. 木物의 種類

分類는 機能과 用途에 따르고 名稱은 標準語로 表記하도록 하였으나 方畧을 使用할 境遇에는 <>로 表示하였고 若

干의 發音差異가 있음을 밝혀 둔다. (二重記入은 用途에 따른것임)

A) 住 居 部

家具…櫃 一色으로 그 用途와 機能에 따라 다음과 같은 名稱의 櫃가 있다.

婚姻櫃, 낭자궤, 돈궤, 壽衣櫃, 실궤, 雜櫃, 印櫃, 佩物櫃, 文書櫃, 族譜櫃, 行裝櫃, 行擔櫃, 負擔櫃, 文房櫃, 뒤주궤등이 있고 籠類, 織類, 卓子類는 거의 없는 편이다.

廚房器具…小盤, <도고리>, <뵈약세기>, <좁팍>, <국자>, <베수기> 국수바리, 방망이, 木鉦盤, 長案板, <홍깃대>, <돛배>, 들판, 편대, 떡본, <장통>, 뒤주, <살레>

燈類……坐燈, 四方燈, 초롱, 촛꽃이,懸燈,

服飾道具……반걸고리, 실패, 옷자, 인두판, <안반>, <홍짓대>, <서답막개>

鞋靴類……<나막신>, 설피

衛生保健道具……나무대야, 藥箱子

文房具……書案, 冊床, 冊櫃, 冊匣, 冊織, 文匣, 硯匣, 硯床, 筆筒, 粉板, 書燈, 便紙考備.

嗜好品……담배함, 재털이, 장기판, 바둑판, <납통>

裝身寢具類……網巾桶, 갓桶, 號牌, 木蓆, 鳳蓆, <빗집>, 木枕, 鏡台, <얼래기통>, <빗통>

B) 生産部

農機具……쟁기, 수레, 지개, <도깨>, <덩드렁막개>, <씨클>, 따비, <곰베>, <푸는체>, <거름체>, <대체>, <섬비>, 남방애, 절구통, 공이, <당그네>, <작대기>, <막개>, <벤줄레>

狩獵道具……뎛(各種), 활, 창, 화살통

漁撈道具……<태우>, 노, 샷대, <태와>, 댕가지, <정개호미>, 빗창,

織造道具……베틀, 물레, <모자골>, <망건골>, <풀머리>, 초석클, 가마니클, 신클, <대패랭이골>, <바딕집>, <꼬리박>, <안반>, <홍짓대>, <새치기>, 풀비, <호롱이>, <물패기>, <집줄어울리개>

畜産道具……구시, <오랑코>, 말뚝

山樵道具……지개, <글갱이>

陶器製作具……물레, 막개, 물래말뚝, 목삽, <뎛ㄹ새>, <조막>

商易道具……저울, 되(升), 말(斗),

工 具……대패, 먹통

C) 儀禮部

婚姻具……婚需函, 가마, 오리

葬 具……喪輿, 달구, 棺, 蓋板木, 七星板

出産道具……돌상, 百日床, 애기구덕

D) 信仰行事部

偶像……영감신, 할망신

祭供具……촛대, 香盒, 祭床, 香床, 편틀, 적틀, 잔, 잔대, 쟁반, 位牌, 혼백상

幣帛類……函, 盒

呪, 卜具……산대

樂器類……북, 장고, 통소, 피리

6 논문집

E) 通信運搬部

運搬具……가마, 질매

行旅報知具……지팽이, 夜警木

F) 娛樂玩具部

娛樂具……윷, 골패, 장기판, 말, 바둑판

玩具……<도레기>, 얼레

■

위 木物의 種類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그 種數가 많아 全般을 다루기에는 未洽하여 濟州 樞와 <남강애>를 中心으로 調査 考究하려 한다.

瘠薄한 土質과 不順한 氣候의 自然的 與件과 被壓迫과 收奪의 歷史的 與件에서 實用爲主의 質朴 陋俗한 濟州樞의 變遷된 由來를 더듬어 보고 그의 型과 分布, 種類와 工程上의 製作過程을 알아 보며 形態上 特徵이 顯著한 樞에 對하여 그 됨됨을 分析함과 아울러 至今까지 命脈을 이어온 技能保有者를 밝혀 두려 한다.

1) 樞의 由來

歷史적으로 뚜렷하게 언제부터 만들어 지고 使用된 것인지는 考證할 道理는 없지만 本住民들이 住居生活기 始作되던서부터가 아닌가 斟酌할 수 있다.

西紀 1520年 8月에서 다음해 10月까지 流配生活을 하면서 本島의 實情을 記錄한 金淨에 따르면

「人居皆 茅茨不編 椽屋上以長木橫結壤之 瓦屋絕少 如兩縣官舍 亦茅蓋也 村屋之制 深廣函深 各棟不相連屬 號品官外 無溫突 掘地爲窠之以石 其上以土泥之如突狀既乾寢處其上 吾意地多風濕 喘欬惡疾之類 多緣此也」⁴⁾ 라는 記錄이 있다.

이로 보아 約500年 前에 島住民의 民家は 거의가 다 새(피)로 이어 묶지 않고 펴서 긴 나무로 둘러 비와 바람을 막았던 原型 단간막살이 집이 아닌가 하고 <울>안은 깊숙하고 넓어서 아늑하며 각채는 서로 連結되지 않고 品官人外에는 溫突을 두지 못하여 구덩이를 파고 돌을 메꾸어 表面을 흙으로 다감하여 溫突 貌樣을 하고 乾燥後에 그 위에서 起居하기 始作하므로 收斂用器의 必要性에 따라 「濟州樞」의 原型(흙덩쿨로 織造되거나 木皮로 만들어진 구덕)이 出現되었을 것으로 推知된다.

그 時期는 盧思愼과 姜希孟에 따르면 「民俗褻險 且多茅屋 細民無窟突 處於地」⁵⁾ 라하여 本住民의 習俗은 어리석고 簡素하여 草家가 많고 가난한 사람은 부뚜막과 溫突이 없고 땅바닥

4) 金淨; 濟州風土錄, 1521

5) 盧思愼, 姜希孟; 東國輿地勝覽, 1481

에서 居處한다는 李朝 成宗代 記號를 考察하여 보아 14世記末로 推定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濟州櫃는 民家の 變遷에 따라 漸進的으로 發展하여 上述하 單間막살이었던 一室空間 構造에서는 <구덕>形 收藏器具가 創出한 것이 櫃의 元祖가 아닌가 하고 다음은 二間막살이 집으로 進展하여 하칸은 <정지칸>이고 다른 칸은 <구들>로 兩分하여 집에 따라 櫃는 若干 機能化한 箱子形이거나 우다지形으로 發展하였던 것으로 본다.

二間이었던 空間構造가 三間집으로 發展하여 中央에 난간과 <상방>을 두고 그 한쪽에 <정지칸>을 두고 다른칸에는 <구들>과 <굴목>을 두어 原始的 暖房施設인 溫突이 出現함으로 壁櫥空間에 收藏家具가 必然的으로 반다지形 機能을 한 櫃가 登場하였을 것으로 看做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四間집으로 發展하여 <마당>을 中心으로 <안거리>와 <막거리>를 마주 보게 앉히고 그 옆에 附屬舍(馬厩厩, 作業場, 부엌, 倉庫)를 두게 된 生活環境 文化가 進歩됨에 따라 家具도 意匠上의 美에 注重하여 製作한 痕跡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렇듯 櫃는 化粧面 板材의 아름다운 木理文을 찾게 되고 裝飾도 單調로있던 약과형 鏡鏡과는 달리 日月文 卍字文等を 透刻한 椽장, 귀세기, 廣頭釘, 감잠기등 諸裝飾은 適切한 空間을 取하여 全体가 잘 統一된 調和의 美가 돋보이는 單純 素朴한 濟州櫃가 創出되었다 할 수 있다.

2) 型과 分布

濟州櫃가 變遷하여 온 過程은 住居의 發展史와 并行하여 다음과 같이 變貌하여 왔으리라 볼 수 있다.

住居의 가장 原形的인 單間 막살이 집 生活에서 <구덕>型 收藏用器로 出發하여 다음으로는 箱子形으로 發展되고 이 箱子形에 蓋物이 있는 全板 우다지形으로 若干 機能化되고 다음은 위를 補充하여 우다지形이 나타나고 다시 家屋構造가 進展하여 溫突을 創案하여 <굴목> 위 壁櫥空間에 設어지는 家具의 必須與件에 따라 「濟州櫃」가 出現하였을 것이다.

이 濟州櫃는 歷史가 흐를수록 本土의 文化 影響을 받으며 機能爲主의 單純한 程度의 役割을 하던 裝飾에는 다음과 같이 變化를 주었다.

門扇板 開閉 機能上의 돌쩌지(剋通耳)에서 始發하여 고리(環形)모양이 되고 이는 다시 약과형의 單調한 一葉型 鏡鏡으로 되면서부터 裝飾의인 意匠美가 漸次的으로 나타나기 始作하여 燕尾形이나 耳葉形으로 變化하여 二出葉 裝飾으로 進展되고 다시 제비초리形인 三出葉 裝飾이 되고 다음으로는 四出葉形과 五出葉 繁多型으로 여러 가지 裝飾에 變化를 가져 왔고 裝飾文樣은 日形, 日月形에서 卍字文形이 많아 濟州櫃의 典型的인 美는 三出葉 三椽장 까지가 本道の 實用性爲主로 製作된 質朴하고 堅固하며 單純한 「濟州櫃」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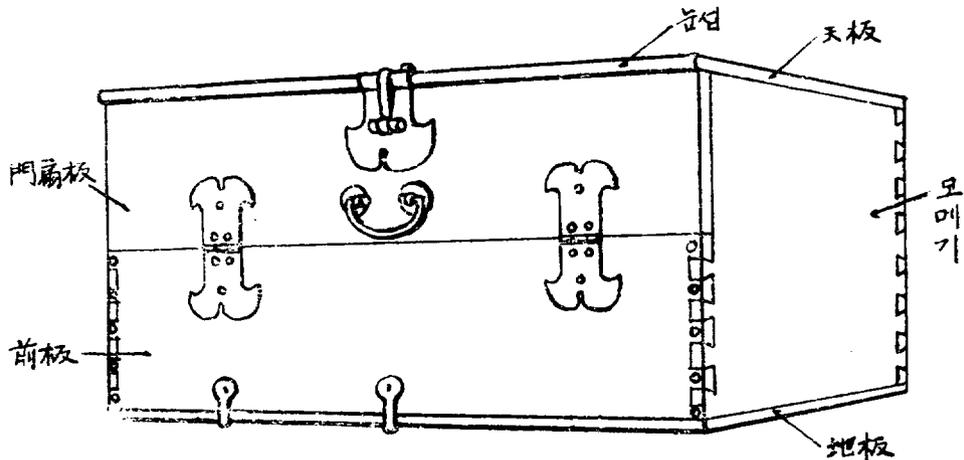
櫃의 形態上 區分은 一般的으로 單다지櫃가 많고 異色的인 形으로는 印櫃, 冊櫃, 行擔櫃, 뒤주櫃, 우다지櫃 等은 그 形態가 顯著하게 다르고 機能이 다르므로 쓰임도 다르게 마련이다.

木物의 分布는 濟州市를 中心으로 東, 西, 南區로 大別할 수 있어 濟州以東은 地形과 地質이 瘠薄하여 荒無地가 많아 良木 生成이 不可하므로 가시나무 木物이 많고 濟州以西은 四, 三事件의 被害가 없었던 文村에서는 比較的 槐木 木物이 많고 南郡에는 벗나무 自生地가 되어 굴무기 木物보다 사오기 木物이 많은 편이다.

3) 種 類

箱子型 (全板 門扇形)

製作 年代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推定할 수 있으며 天板이 다 門扇板으로 開閉될 수 있는 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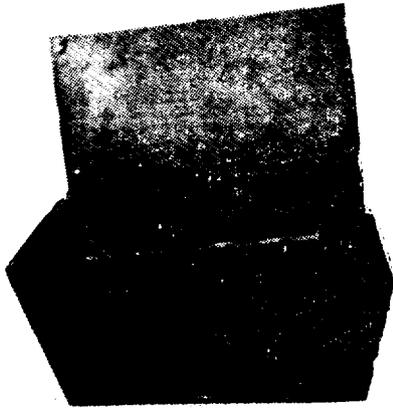
(크기;가로111cm세로52cm높이60cm 濟州市一徒二洞 丁哲子氏 所藏 圖面2)

六面 全体의 板張은 約2.5cm 두께인 먹사오기板 (黑檀木板) 으로 만들어진 箱子形이고 그 構造는 四面立板을 四個程度의 <파리머리>로 된 筍子로 듬성듬성 네귀물림하고 底部에 地板을 竹釘으로 附差시켰으나 더욱 堅固하게 하기 爲하여 前後板은 地板과 各各 二個式 <쇠역>을 박았다.

天板은 箱子開口部 크기와 같고 全体가 門扇板으로 되어 口緣과 正確하게 엮어 달아지도록 箱子 内部의 四隅限界點에 各各 2×2cm 크기의 암장부 구멍을 뚫고 約2cm 가량 突出되는 장부측을 단단히 끼워 開閉에 不便이 없도록 考案되었을 뿐 工藝的 意匠의 美는 考慮치 않

았다.

단지 物性を 收藏하는 古代家具에 지나지 않고 門板을 天板으로 하여 箱子의 内部 收藏空間과 上部의 物置空間의 二重 效果를 兼하여 만들어 졌으며 製作 工具로는 틸과 자귀 外에는 使用한 浪跡이 없으며 板張의 切斷面이나 네귀물림 亦是 平直線이 아니어서 間隔은 성기고 형성하며 板材의 化粧面은 자귀 다듬질 마감으로 粗野스럽고 陋俗古拙한 맛이 나는 櫃이다. (寫眞2)



(크기;가로81cm세로40.5cm높이43cm健入
(洞1279 萬元鍾氏 所藏 寫眞2)

우 다 지

이 櫃는 上述한 箱子型 (全板 門扇形)과 典型인 반다지櫃의 中間形에 屬하는 우다지櫃이며 그 出現時期는 家屋構造上 壁櫃 (구들의 굴목상 上段層)이 登場하기 以前時代에 이미 存在하고 있었던 것으로 推知되며 全板 우다지櫃의 機能에서 門扇板 上部의 置物空間을 補完하여 天板切半을 門板으로 만들어 진 櫃이다.

六面全板의 두께는 約2cm인 굴무기 板材로 되어 天板은 門扇板과 固定板이고 内部 收藏空間과 外部 物置空間의 收用機能을 參酌하여 門板의 幅은 22cm로 天板幅의 2/3가 開閉 可動케 되었다.

構造的인 美는 槐木의 自然 木理文을 最大로 利用하면서 左右 모메기板 兩端에 <파리머리>로 된 筍子에 前, 後板을 끼워 네귀물림을 하고 地板과 天板의 固定

板을 竹釘으로 附差시켰다.

경형은 燕屋形 二出葉 二枚이고 통쇠 거리는 前面 中央 上端部位에 上向 굽멍쇠를 달고 門板 中央 前端에 四角形 無文 바닥쇠를 받고 두 배목을 박아서 三排目이 서로 通하게 하고 배목 자물통거리는 門板 前端部位에 附着되어 있는 點이 特異하다하 겠다. (寫眞3)

반 다 지

工程으로는 「옆모메기型」과 「선 모메기型」으로 區分되며 一般적으로 濟州櫃에 採擇된 工法은 前者인 옆 모메기型이다.

옆 모메기型은 側面 板材를 옆으로 누어 썼고 그 左右 兩端에 筍子는 外向 鈍角<파리머리>로 하여 前後板을 끼워 네귀물림을 하고 天板과 地板을 附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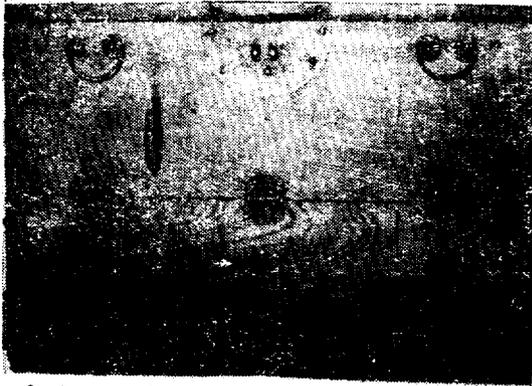
(크기;가로67cm세로33cm높이31cm 濟州大學 民俗博 物館 所藏 寫眞3)

켜 만들어지는 工法을 말한다.

선 모메기형은 高가 높은 櫃를 造成하는데 이 工法이 쓰여 지는 것으로 모메기 板材를 從으로 세워 쓰는 것으로 立板 上下端에 연 네귀물림을 하여 後板은 높이가 높으므로 맞넨 이음으로 板張을 붙이고 前面은 固定 앞판만 接着材 (민어풀, 아교풀) 를 쓰면서 竹釘이나 裝飾 못으로 固定시켜 造成하는 工法을 말한다.

小型櫃……六面 全板이 1.5cm 두께인 槐木으로 만들어진 小型櫃로서 그 裝飾의 形態는 橢圓形 달면 경첩 (中央 경첩은 더욱 둥근 편임) 이 三合이고 앞판 네귀에 <귀짜기>는 붙였고 門扇板 中央 上端部位에 통쇠거리 바닥철은 天板 前端部位의 <천박이>와 맞 이어지는 半月形이고 두 배목을 中心하여 外向 日月形을 對稱으로 透刻하였다.

앞판 左右端에는 三合式의 丸頭釘을 박아 넣었으며 門板의 당길쇠도 凸點 (눈통이) 이 있는 돈철 바탕을 使用하여 裝飾의 意匠效果和 木理文의 自然美를 잘 調和시킨 櫃라 할 수 있다. (寫眞4)



(크기;가로50cm세로29cm높이35cm 濟州市三徒二洞 李濟民 氏 所藏寫眞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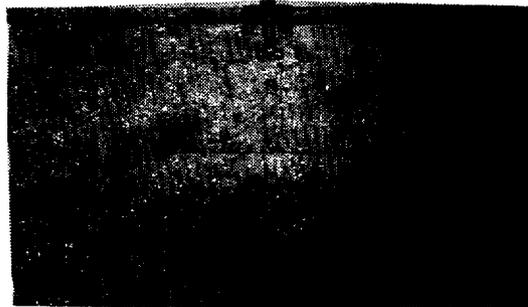
박고 <곰병쇠>코와 가지런히 놓이게 하고 半月形 당길쇠는 배목바대가 없이 着定되었을 뿐 아무런 裝飾이 없다.

커다란 바닥철에 鈍重한 곰병쇠와 배 목이 더욱 무게 있게 보이고 합장, 당 길쇠만이 附着되어 機能面만을 考慮하여 裝飾의 效果를 意圖한 것이 아니고 木理文에 더욱 留意하여 만들어진 櫃가 아닌가 한다. (寫眞5)

中型櫃 (二) …六面 全板이 約2cm 두께인 雲文 槐木板張으로 造成된 櫃로 裝飾이 形態는 兩合形이고 합장과 바닥 철은 繁多形과 類似한 感이 있고 합장

中型櫃 (一) …六面 全板 두께가 約 2cm인 槐木板으로 造成되었으나 地板은 若干 얇은 편이다.

裝飾은 兩合 形態로 左右가 整齊된 비선코形 二出葉 경첩으로 鐵板의 두께는 一定치 않고 합장 中心部에 갈수록 1.0% 程度이고 二出葉 葉端은 망치로 퍼 나가면서 約0.4%로 얇아 진 경첩이 고 同합장의 上下로 半分된 形으로 擴大된 바닥철에 崞직한 二個의 배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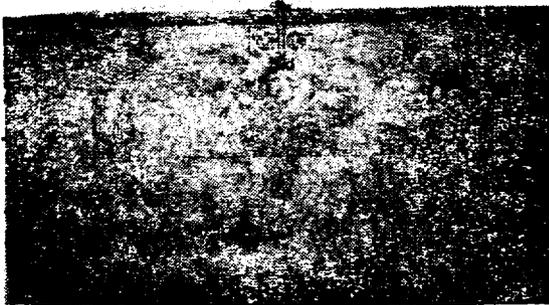


(크기;가로80cm세로40cm높이43cm 濟州市三徒二洞 方慶子 氏 所藏 寫眞5)

의 上下 中央部에 卍字文을 살린 透刻을 하였다.

이 繁多形 鏡槷 裝飾은 二出葉形에서 벗어나 버선바닥 모양이 兩分된 四出葉 裝飾文樣으로 進展되었고, 바닥철은 四出葉 下端 中央部에 꽃봉우리形이 더 突出된 五出葉 繁多形이며 두 배목 위 左右에 卍字文을 살린 透刻이라 하겠다.

이 바닥철에는 天板 中央 前端을 감싼 <천박>에 배목을 박고 <곰병쇠>를 길게 내려 통쇠거리 두 배목 크와 맞게 하였고 <눈통이>가 있는 돈쇠 받침에 당길쇠가 門板 左右에 着定되고 앞판 兩端에는 丸頭釘이 各各 三個式 밝혀져서 濟州櫃에서는 比較的 裝飾的인 櫃이다.



(크기;가로83cm 세로41cm 높이43cm 北濟州郡 涯丹面下加里 林致永氏 所藏 寫眞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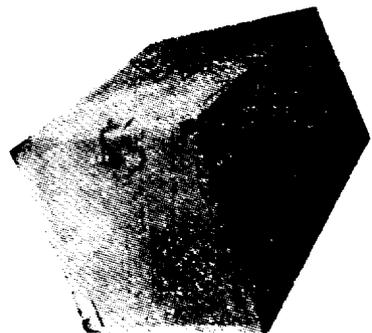
大型櫃...全六面板이 約3cm 두께인 槐木板으로 만들어 겹고 裝飾은 兩合形으로 두개의 합장은 幾何的으로 半分된 耳葉形 二出葉 無文 합장이고 이와 같은 큼직한 形의 바닥철에 두 배목을 박고 <눈섭>을 감싼 <천박> 바탕에 배목을 박아 곰병쇠 크가 통쇠거리 배목과 가지런히 내려 왔다.

앞판과 地板에는 세 개의 감잡이가 附着되었으나 右側 감잡이는 없어졌고

앞판 네귀물림을 한 凸出木에 丸頭釘을 五個式 박았으며 門扇板 中央部位 바탕쇠 밑에 돈쇠 바베를 하여 당길쇠가 附着되었으나 機能上 利用되지 않을 位置에 意匠的으로 붙여 있고 槐木 自然文이 더욱 美的으로 보이는 櫃이다. (圖面2)

冊櫃...全六面板이 約1.8cm 두께인 槐木으로 造成되었으며 그 構造는 모메기板에 後面板을 內接시켜 卍字形으로 構成하고 이 크기에 맞는 地板을 竹釘을 박아 附着시키고 天板은 門扇板이 上下로 움직여 開閉될 수 있는 間隔만큼 後退시켜 같은 方法으로 固定시켰으며 門板은 모메기板 前端에 內嵌되어 可動하므로 裏面에 9% (3分) 두께와 높이로 도들판이 되었고 모메기판 內面에는 上記한 作動이 可하게 <흡백>으로 되었다.

통쇠거리는 門板 中央上端部位에 四出葉 바닥철을 받아 두배목을 박고 天板에는 네모 바닥철을 받고 곰병쇠 거리 배목을 박아 縫着部 배목이 가지런히 놓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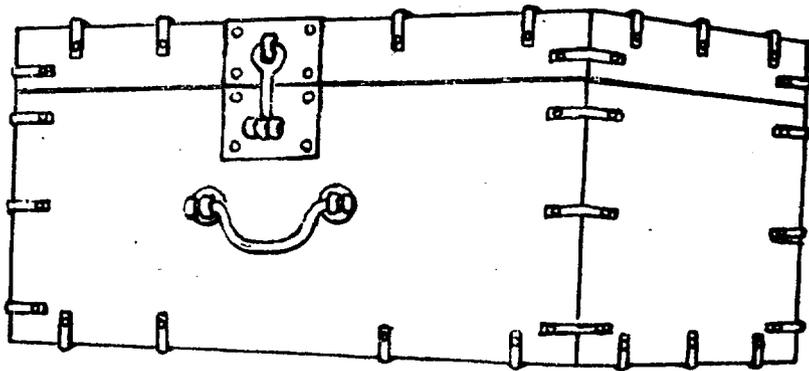


(크기;가로25cm 세로46cm 높이28cm 濟州市 三徒一洞 朴久培氏 所藏 寫眞7)

게 되었다. (寫眞7)

行擔櫃, 負擔櫃(함께)…全六面の 두께 1.5cm인 먹사오기板材로 組立되고 立面板은 연 네 귀물림을 하여 天板과 地板을 附着시켰으나 더 튼튼히 하기 爲하여 黃銅 국수감잡이를 上下에 各四個式 붙이고 側面에는 三個式을 붙였다. 收藏用 立板 네모서리에는 各 三個式과 蓋物 모서리에는 各 一個式을 붙여 더욱 堅固하게 만들어 졌다.

收藏空間의 높이는 29cm이고 蓋物의 높이는 5.5cm가 여닫는 機能上의 結構은 약과형이고 蓋物 앞면 中央에 四角 바닥철을 받고 <고들쇠> 거리 베목을 박고 收藏箱子 前面上端部位에도 같은 네모 바닥철에 두 베목을 박아 자물통거리가 되고, 돈철 바탕에 半日形 들쇠가 前面과 後面 中央에 着定되어 運搬에 便利하게 考案되고 이음새나 물림새가 精巧하고 裝飾도 全体가 黃銅으로 貴族的으로 만든 匠人的 櫃이다. (圖面3)



(크기 : 가로77cm 세로38cm 높이34.5cm 濟州市連洞 李光子氏 所藏 圖面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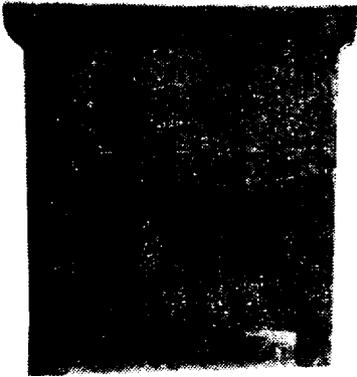
뒤주櫃 : 뒤주는 原來 穀物을 收藏하여 두는 家具로 天板의 開口部를 閉鎖시키고 앞판 切半 上部를 門扇板으로 變造하여 반다지櫃의 機能을 하게 한 櫃이다.

이 뒤주櫃는 大廳마루 間에 두며 그 위에 李朝 白壺等의 裝飾物을 얹어 놓는 韓國的 家具로 骨材는 <먹사오기> 角木 (8×4.5cm) 을 썼고 흙을 과서 槐木板을 단단하게 끼워 創意的으로 造成되었다.

構造的 美는 2cm 두께의 天板 밑으로 骨材는 넓은 面을 앞으로 使用하여 <입쟁이> 와 <부출> 의 너비는 8cm가 되며 門扇板의 크기는 가로 59cm 높이 25cm 固定앞판이 높이도 34cm여서 前面板材 크기는 59cm 正方形이다.

다리는 防虫 防濕의 被害를 막기 爲하여 10cm 높이로 큼직하고 單純한 風穴이 되게 하고 裝飾의 美는 門扇板 中央 上部에 四出葉 바닥쇠에 두개의 베목을 박고 긴 <고들쇠> 가 天板에 베목으로 박아 鍵着裝置를 하고, 門扇板과 固定板에는 三出葉으로 된 同一한 합장 三枚

를 附着시켰고 屯墾 바닥쇠에 半月形 당길쇠가 門板 左右 上端部位에 달렸다. 固定 앞판은 두 <입쟁이>와 接하는 面에는 一字形 감잡이가 各 二個式 박았고 앞판 底面 <부출>과 接하는 面은 圓形 감잡이 三個가 附着되어 더욱 堅固하게 보여 지는 一般的인 거명쇠 櫃裝飾을 利用하여 郷土色을 풍겨주는 櫃이다 (寫眞8)



(크기 : 가로 85cm 세로 66cm 높이 91cm 濟州市 龍潭一洞 高甲生氏 所藏 寫眞8)

4) <남방애>

材料와 製作…… <남방애>는 木質이 단단한 굴무기, 가시나무 등으로 만들어 졌으며 그 形態는 圓形 橢圓形, 方形이 있다.

<남방애>는 언제부터 製作하여 使用되어 왔는지는 確實치 않으나 泮庵 金淨에 依하면 절구는 있으나 방아는 없다. 「負而不載 有白無春 淸衣無砧 (以手釐打) 治鏝無踏踏 (鼓鏝)」⁶⁾ 라는 記錄에 依하여 <남방애>는 지금으로부터 約 500年 以前부터 製作 使用되어 졌다고 볼 수 있으며 다시 淸隱 金尙憲의 記錄에 依하면 절구는 있으나 방아는 없고 지금은

마을안에 두어 집방아를 본뜨어 만들어 陸地와 같이한 자가 있으나 地方人들은 옛 習貫에 젖어 이것을 잘 쓰지 아니한다. 「有白無春 (今則村中有數家效作春碓如陸地者 而土人習於舊習不肯爲之云)」⁷⁾ 라하여 <남방애>보다 約 100餘年後에 出現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남방애>를 몇 代에 거쳐 遺産으로 물려받고 使用해 왔다는 朴恩甫 (76歲 北濟州郡 涯月面 涯月里 居住)와 梁仙玉 (80歲 濟州市 蓮洞 居住)의 助言을 參考하여 形態와 機能에 對한 調査記錄을 整理해 보면 <남방애>의 木材는 部落民들이 서로 相助하여 Ⅱ-2材料 入手方法에 따라 現場에서 大略 模型을 만들고 部落안으로 運搬해서 作業을 繼續하였다.

伐採된 原木은 <남방애>를 製作할 수 있을 만큼 適當한 길이로 切斷해서 圓柱木을 만들고 이 圓柱木을 다시 半圓柱形으로 切開하는데 그 過程은 原木이 乾燥하기 전에 木心部를 中心으로 해서 兩쪽의 크기가 같게 먹줄線을 쳐서 치수를 定하고 그 線을 따라 木筵을 適當한 間隔으로 植入하여 切開하였다. 한토막의 原木으로 한쌍의 <남방애>를 만들었지만 間或 圓柱木을 빼치지 않고 그대로 利用해서 한개의 <남방애>를 만들기도 하였는데 그 理由는 木形과 木質이 단단한 中心部를 利用하기 爲해서 取해진것으로 안다.

이렇게 一次 整理가 된 材木은 部落안의 作業場으로 옮겨지고 다시 <남방애>의 機能과 構造에 알맞게 치수를 마련한 다음 棼은자귀, 자귀로 깎고 다듬어서 <남방애>의 形態가

6) 金淨; 濟州風土錄, 1521

7) 金尙憲; 南樓錄, 卷之一, 1633

完成되면 끝로 <방앗등이>의 中心部에 鎔鑪形의 半球窟을 파고 여기에 돌확을 끼워 움직이지 않도록 <호비칼>로 정정하고 틈은 牛馬糞으로 눌러 固定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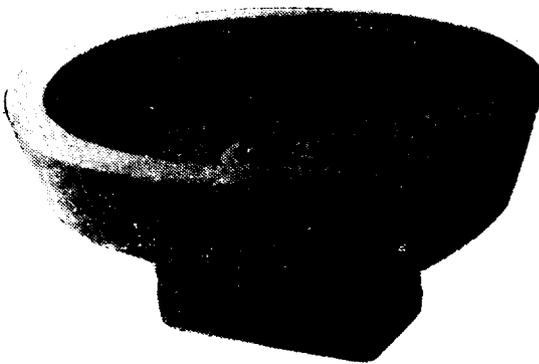
이와 같이 <남방애>의 製作은 相當한 時日이 要하기 때문에 農閑期와 霖雨期를 이용하고 겨울철의 酷寒期는 물론이고 農繁期라 할지라도 餘暇를 내어서 製作을 持續하여 島民의 生活와 밀접한 關係를 지녀 만들어 졌으므로 靑上들의 生活와 哀歡을 들려주는 貴重한 民具라 하겠다.

形과 規格……巨木의 통나무를 빠게고 깎아서 만든 <남방애>는 梯形의 단단한 <굽> 위에 큼직한 <도고리>를 얹힌 形으로 평평한 바닥을 <방앗등이>라 하며 그 中心部에는 鎔鑪 모양을한 <돌혹>을 끼워 놓았고 <방앗등이>를 이어 一尺 程度의 鉢形 <천>으로 되어 있는 게 <남방애>의 基本構造이다.

이 <남방애>의 素朴한 原理는 비단 濟州島에서만 創出되어진 것은 아니고 韓半島一帶에 分布된 방아나 절구와 그 機能面으로 보아서 별 差가 없지만 濟州島의 <남방애>인 경우는 그 形態構造가 特異하다 하겠다.

全體의 높이는 45cm~65cm, 굽의 높기 25cm~35cm, 목의 넓이 30cm~55cm, 底邊의 넓이 35cm~60cm, <방앗등이>는 內部的 直徑 50cm~110cm, 두께 10cm 內外, <방에천>은 口緣의 直徑 60cm~120cm, <천>의 높이 20cm~30cm, 두께 10cm 內外, <돌혹>은 口緣의 直徑 25cm 內外, <돌혹>의 깊이 20cm~28cm, 두께 5cm 內外이다.

다음은 濟州大學 民俗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 <남방애>(寫眞9)의 規格을 參考하여 보면 <굽>의 넓이 50cm, 높이 27cm, <방에천>의 높이 25cm, 두께 9cm, 口緣의 直徑 110cm <방앗등이> 內部的 直徑 95cm, <돌혹>口緣의 直徑 23cm, 두께 4cm, 깊이 24cm이다.



(寫眞 9)

構造……<남방애>의 形態 構造를 살펴 보면 正方形의 <굽>은 <방앗등이>와 연이어져서 깊숙히 패어 돌확을 끼우게 되어 있고 두께가 두꺼우며 위로 갈수록 약간 遞減되어 梯形으로 安定感을 준다. 이 <굽>중에는 十字形 四脚굽이나 一字形兩脚굽이 있고 梯形 或은 圓弧 모양의 홈을 파서 風穴을 만들었다. 이 風穴은 <남방애>를 使用할 때 作業場이나 保管해 두는 <헛간>의 밑바닥이 고루지 못할 경우라도 平衡을 維持할

수 있도록 함과 同時에 防濕 防虫을 위하여 考案된 것이라 본다,

<굽>의 높이는 <남방애> 全体 높이의 1/2보다 높아서 作業上 便利하고 能率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力學的인 힘의 均衡을 이루어 安定感을 느끼게 하고 視覺的인 調和를 이루고 있다.

<방엿등이>가 넓고 평평하게 考案된 것은 <방엿귀> (절구공이)를 내리쳐도 그 衝擊에 흔들리지 않고 穀物을 <돌혹>에 연달아 집어 넣을 수 있도록 되었다.

<방엿천>은 鉢形의 帶로 되어 있는데 간혹 方形 或은 橢圓形의 것도 있으나 이것은 製作할 때 原木의 形態에 制限을 받았기 때문이며 이 <천>은 굽과는 反對로 위로 上昇할수록 점점 遞加되어서 함지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천>을 높고 두껍게 製作한 것은 穀物의 알갱이가 밖으로 튀어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남방애>를 찜을 때 周圍에 둘러서서 <천>을 짚고 作業할 수 있도록 着眼한 것으로 본다.

<돌혹>은 粗面岩을 使用하여 바닥이 圓底인 半卵形鎔流 모양이고 直立口緣에 홈을 파서 穴을 만들었다.

韓半島 各處에서 利用되는 절구는 適切한 높이의 둥근 통나무를 파서 穴을 만들었을 뿐 별로 人工이 加해지지 않아서 全体의 構造가 매우 單調롭게 考案되었는데 比해서 <남방애>의 構造는 中腰部가 上下로 遞減된 神仙爐形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남방애>의 形態에서 주는 느낌은 島民의 勤勉素朴性과 率直하고 謙虛한 態度와 垂直한 面을 보여 주는 한편 텅 비어 있을 空虛感을 주면서도 때로는 무엇인가 가득 넘쳐 흐르는 滿足感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그리고 默重하고 단단한 木質에서 安定感을 주는가 하면 柔軟한 木理文은 어딘가에 輕快感과 親近感마저 느끼게 하기도 한다.

附屬木物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방엿귀>……<방엿귀>는 韓本上에서 使用되는 절구공이보다 규모가 작아서 길이는 80cm 內外이며 中腰에 한 뼘 남짓한 손잡이가 있고 이 손잡이를 中心으로 兩쪽의 굽기나 모양이 같은 棒形으로 되어 있으며, 굽기는 直徑이 10cm 內外이다.

<좁팍>……穀物을 푸고 남는데 使用되는 木器로 밀둥이 둥그스름하게 되어 流線形의 작은 木器이고 아주 작은 것은 <뱃약세기>라고 한다.

<도고리>……穀物의 搗精 製粉 등의 여러가지 用途에 使用되는 木物로서 그 크기가 多樣해서 直徑이 30cm ~ 110cm인 것이 많고 이보다 큰 것은 使用에 不便하므로 製作을 考慮하였으며 작은 것은 <남박세기>라고 하고 用途가 많다.

分布와 機能……李元鎮의 記錄에 依하며 土質이 매우 뜨고 매달라서 開墾하여 밭을 만들고 씨를 뿌리면 만드시 牛馬메를 물고 밟아야 한다. 2-3年間 連이어 耕作하게 되면 播種한

作物의 이삭은 여물지 않으므로 다시 開墾하니 그 수고로움은 몇 배의 힘이 드나 收穫은 亦是 적으므로 島民은 恒常 生活에 固窮을 免할 길이 없다. 「土性浮緩墾田必驅牛馬以踏之連耕二三年則穀穗無實不得已又墾新田功倍穫少所以民困窮」⁸⁾ 라는 것으로 보아서 本島는 地勢가 瘠薄하고 風多의 점이기에 때문에 農民의 괴로움이란 말로 다 披瀝하기가 어렵다.

島民의 主穀은 보리와 조이며 以外 여러가지 雜穀을 <남방애>를 利用하여 糧食을 마련했으므로 마을마다 <남방애>를 소유한 家口數의 分布率이 높고 <남방애>의 使用頻度가 많아서 그 構造가 堅固하게 製作되었다.

<남방애>의 使用에 關한 李健의 記錄에 依하면 女人이 방아를 찧을 때는 群聚하고 힘을 합하여 노래(杵歌)를 合唱하면서 찧으므로 耕作에 두어斛 곡식을 能히 장만할 수 있으나 그 노래 소리가 슬프고 처량하여 차마 들을 수가 없다. 「女人有砧杵之役 群聚并力 齊發杵歌 數斛之穀 頃刻舂之 而歌聲悲涼 不可聞也」⁹⁾ 라고 되어 있어서 <남방애>의 使用이 얼마나 頻繁하였는가를 斟酌할 수 있다.

<남방애>는 곡식을 장만하는데 이삭에서 알갱이를 떠는 일 곡식을 찧는 일 곡식을 빻는 일 등에 쓰인다.

<남방애>는 곡식을 빻는데 자주 使用되고 有故時에 製粉用으로 使用되고 김장철에 고추 마늘과 간장용 <매주>를 빻고 이 외에도 島民의 作業服인 <갈옷>을 만들기 위해서 靑감의 靑을 내어 染色하는 등의 그 用途가 多樣하였음을 알 수 있다.

作業樣式은 圓卓과 같이 둥근 <남방애>의 周邊에 一人 或은 二人이나 三人 까지도 參與하는데 人員에 따라 作業의 能率도 差가 생긴다. 예전에는 不撤晝夜 노래를 부르며 <남방애>를 찧었으나 30餘年前부터는 精米所가 생기고 그 數가 늘어가면서 <남방애>는 점차 적으로 그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5) 技能 保有者

木工匠…現在 建入洞 1421番地에 居住하는 70歲文昌權匠人(寫眞10)은 漢文을 修學하고 18歲에서부터 繼續 이 木細工에 投身 近五十年間을 이 일에 從事하여 島內에서는 第一人者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6坪 程度의 工房을 마련, 作業에 沒頭하며 한 때는 濟州家具가 本土와 日本等地로 輸出되어 나갔다 그 理由는 自然 木理文을 最大로 利用한 굴무기(龍文, 雲文, 波文等), 사오기(黑, 白, 紅色) 등의 良木原材料를 꾸밈없이 豐足하게 썼고 接合部의 장부물림은 5~7分 程度로 깊게 물려 여간한 衝擊에는 損傷이 없게 堅固하고 實用的으로 造成하였으므로

8) 李元鎮 ; 耽羅志, 風俗條, 1653

9) 李 健 ; 濟州風土記, 1935

濟州家具가 道外에서 歡迎을 받았다고 한다.



(寫眞 10)

이와 같은 鐵裝房이 登場한 時期로는 金淨에 依하면 「冶鑪無踏踏(鼓索)」¹⁰⁾라 하여 풀무는 밟지 않고 체를 손으로 造作한 記錄으로 보아 至今으로부터 457年 以前에 <불미방>이 存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西紀 1416年 安撫使 吳湜의 建議에 따라 旋義 大靜兩縣을 세움으로써 李朝文化圈의 影響을 깊게 받으며 工房이 設置되고 匠人을 두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은 濟州牧 李元鎮에 依하면 「匠人 軍器匠人外 各色匠人不過精造進上諸具而 已不須數多而…水鐵匠, 冶匠, 鉗匠, 巫覡 自收稅有半正米一斗」¹¹⁾라 하여 16世紀에는 水鐵匠, 冶匠 鉗匠 등으로 材料와 製作上의 性格에 따라 細分化된 高度의 技術의 各邑面으로 波及되고 이 는 다시 各村落에 까지 대장간이 出現하여 民具의 裝飾은 勿論 農機具, 漁具에 까지 製作需給하였던 것으로 본다.

濟州櫃에 附着하였던 裝飾類는 鏡棼(합장), 귀장식(귀세기), 뽕침대, 잠을쇠, 들쇠,

工具로는 큰톱(原木 製材用) 작은 톱 <좁톱>, 줄톱(대거리 줄톱은 4인용, 증거리 줄톱은 2인용, 소거리 줄톱은 1인용), <계자리>, 먹술, 대패, 끌, 곱은자, 송곳, 자귀, 망치등이다.

裝飾匠…現在 濟州市 龍潭洞 601番地에 居住하는 65歲 文南龜 匠人(寫眞11)은 朴萬甲先輩에 依하여 1930年頃 부터 師事를 받으며 繼續 四十年間 이 裝飾 製造에 從事 하고 있다.

5~6坪 程度의 工房을 차려 풀무, 화덕, 모릿돌, 鉗이 10餘種, 작도등과 近代化된 프레스가 있고 近間에 이 일 이 盛함은 古家具의 修理로 因하여 腐蝕된 鐵裝飾을 交替 하므로 바쁘게 注文에 應하고 있는 實情이다.



(寫眞 11)

10) 金淨; 濟州風土錄, 1521

11) 李元鎮; 耽羅志, 匠人條, 1653

통쇠, 바탕쇠, 천막, 당길쇠, 배목, 고리, 감잠이, 돈칠, 뚝, 들저귀, 박쥐, 난초等 여러가지 裝飾이 만들어 졌다. 自然形 文樣으로는 四君子나 花文等에 根據를 두었고 幾何形 文樣으로는 卍字, 雙喜, 吉祥文, 太極文, 日, 月등에 바탕을 두어 附着시킬 母體의 크기에 따라 크고 작고 形形色色 多様하게 製作되어 島民의 地理的, 歷史的 與件上 陋俗한 社會 樣相이 나타나고 있다.

VI

本土의 家具는 二層櫥 三層櫥 四層櫥等의 構造上 分類도 多様하지만 華角櫥 자개장, 梧桐櫥, 樺榴櫥等 材料에 依한 分類도 多彩롭고 用途와 機能面에서도 버선장, 卓子櫥, 의걸이장 藥櫥, 饌櫥, 冊櫥, 미릿장, 반다지櫥等의 單一 機種類만 하더라도 여러가지로 分類된다.

籠種類에도 二層籠, 三層籠, 四層籠等의 구조적 分類와 用途나 機能上의 分類도 多様하게 나뉘어 지고, 卓子類에서는 二層卓子, 三層卓子, 四層卓子, 五層卓子가 있고 用途와 機能上으로는 冊卓子, 四方卓子, 饌卓子等 여러가지로 類別되고, 文匣類도 上述한 바와 같이 그 종류가 多様하게 많지만 本島의 家具는 濟州匯 以外의 家具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종류로나 數交로도 도저히 本土 家具와 比較할 바 못된다.

그러나 濟州匯는 이 鄉土의 生活相을 反映한 結晶体인 同時에 本土家具의 收貯 機能을 다 하였으며 그 構造는 江華만다지, 博川만다지, 平壤만다지와도 類似한 例一은 결이 고운 松木文을 繪裝하지 않고 自然美 그대로를 솔직하게 表出하여 짜임새나 이음새도 優秀한 匠人의 工程이 돋 보이며 材料의 素朴함에 맞추어 거침의 裝飾을 붙여 質朴하면서 分明한 裝飾 效果를 피한 江華만다지이다.

例二는 槐木으로 製造된 大型만다지로 接合部의 補強을 爲하여 굵은 국수거밀 감잠이로 감싸 붙혔고 門扇板은 제비초리 경첩으로 連結하고 커다란 제비초리 앞바탕에 두 배 목을 박아 그 사이에 길목이 끼워지고 박쥐 바탕에 반달 당길쇠가 양옆에 달렸고 그 밖으로 菊花形 竪頭釘이 셋씩 박혔다. 앞판에는 세개의 七寶 卍字透刻의 菱形 裝飾이 있고 귀에는 나비 목쇠가 裝飾된 櫃이다.

例三 반다지櫥은 上部는 櫥이고 下部는 반다지로 造成하여 特히 옆널을 아래 위 통판을 써 세물 기둥이 되고 櫃의 앞경이는 龍木板을 끼워 面은 화사하고 單純하며 큼직한 달면 자물쇠 앞바탕에 큼직한 고리, 큰 약과 경첩은 下部 반다지 거침의 裝飾과 調和를 이루었다.

下部만다지는 槐木板에 七寶文 제비초리 경첩四枚를 對稱되게 붙였고 卍字文 제비초리 앞바탕이 門扇板 中央 上端에 붙고 그 左右에 卍字文 자물쇠 열쇠 받이가 붙었고 당길쇠가 없는 게 特異하고 門板 左右에 菱形 竪頭釘이 各二個式 박히고 앞판 中央에는 不老草裝飾이

配置되어 端雅하면서도 반다지 穢中에서는 群鵝一鶴인 家具이다.¹²⁾

以上과 같이 本土 家具들은 自然木理文을 그대로 솔직하게 表出하는데 있지 않고 華角, 竹, 자개, 文樣文等を 附合하거나 그림이나 文樣을 象嵌하고 朱添等を 塗裝하여 家具材의 脆弱性を 감추고 煩多한 裝飾爲主의 華麗한 貴族的 家具라 하면 本島의 家具는 槐木과 櫻木을 主로 使用하여 自然 木理文의 効果에 더 重點을 두고 거침치 裝飾은 機能을 다하는 程度의 三合과 바닥질, 당길쇠같이 附着되고 櫃가 大形化될수록 接合部의 補強을 爲한 감잡이와 귀찌기가 附加됐을 뿐, 機能爲主의 堅固性和 木理의 美를 살린 自然主義의 古拙質朴한 庶民的 木物이라 하겠다.

<남방애>는 自然 原木의 豊富하여 韓本土의 절구의 單調한 機能과는 달리 넓은 <방애천>에 1~2斛 程度의 穀物을 넣고 중심부의 돌확에서 연이어 쟁을 수 있게 機能面을 考慮하여 本島만이 特有的 形의 <남방애>를 만들었다.

이는 굴무기가 가시나무등으로 단단하고 투박하게 만드려져 肉重하고 粗野한 反面 形態의 安定感과 木理文에서 오는 輕快感은 恒時두고 使用하여도 실증이 없는 親近感이 多分한 木物이라 하겠다.

V

本島의 木物은 歷史的 地理的 自然環境 속에서 材料를 求하고 文化的 側面에서 影響을 받으면서 本島만이 獨特한 樣式의 民俗品을 創出하여 왔다고 본다.

濟州는 絶海孤島이므로 文化流通이 杜絶되고 瘠薄한 土質과 不順한 氣候의 與件과 설음과 눈물로 얼룩진 被壓迫과 收奪의 歷史속에서 陋俗한 生活이 永續되어 왔으나 自然의 天惠로 原木이 豊富하여 櫃와 <남방애>를 비롯한 日常生活에 必要한 여러가지 木物民具를 製作하여 使用하여 왔다.

이 民具는 外來文化的 影響을 받으며 漸次的으로 發展하고 改良되어온 生活體驗의 結晶体인 것으로 本島 基層文化의 一面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本島의 家具는 <구들>房 生活空間의 壁繼上位에 있어지는 <옆모메기型>濟州櫃 一色以外 다른 家具는 없으나 本土의 多樣한 家具中에는 面面에 辟邪獸, 吉祥文, 花鳥文等を 牛角薄版에 原色으로 彩色을 하여 接着시키고 殘餘木面은 華麗하게 塗粧하여 凜然하고 權位 있는 文樣과 色彩로 韓國의 儒佛思想이 表出되고 있다.

舍廊房 文房具類도 書床, 冊櫃, 硯匣, 筆筒이 具備되어 있을 뿐 四房卓子, 文書函, 紙筒 書籠等 李朝典型的 書室家具는 거의 없는 편이다.

12) 崔淳雨, 鄭良謨; 木添工藝, 同和出版社, 1974.

本島의 內室環境은 陋俗한 生活이므로 內室家具도 亦是 濟州櫃가 중심이고 반질고리, 인두판, 옷자, 빗통簡素한 面鏡등이 備置되고 있으나 本土의 內室家具는 各種櫥, 各種箱, 미릿櫥, 옷기리, 卓子, 饌卓, 鏡台, 퇴침, 좌의자, 침대, 집고비, 등잔, 패물함등 華麗하고 다양한 家具가 여러 分類에서 比較할 수 없으리 만큼 그 種類가 많다.

裝飾文樣의 形態는 民族文化의 社會相을 다양하게 造形化시킨 韓國의 文樣인 것으로 그 原形은 自然文과 幾何文에 依存하여 裝飾化하였으나 本島의 裝飾은 木物의 收縮 膨脹을 막고 나무의 脆弱性을 補強하고 機能上의 門扇板을 여닫는 합장, 베목통쇠받이 바탕쇠, 굽병쇠, 당길쇠, 들쇠정도가 濟州櫃의 裝飾이 된다.

또한 本島 <남방애>는 韓本土의 절구와는 다르고 통나무를 파서 穴을 만든 單調한 形態에 比하면 濟州<남방애>는 中腰部가 上下로 遞減된 神仙爐形과 關連이있다 할 수 있고 이 形態에서 주는 느낌은 島民의 勤勉 素朴性과 率直하고 謙虛한 態度와 愚直한 面을 보여주는 한편 空虛感을 주면서도 무엇인가 가득차 넘쳐 흐르는 滿足感마저 느끼지고 묵중하고 단단한 木質에서 안정감과 親近感을 誘發하기도 한다.

이렇듯 濟州木物은 地瘠民貧하여 諸般 道具를 具備치 못하여 톱과 자귀면 족하고 材料는 있는 데로 自然스럽고 期限없이 淡淡하게 製作하므로 精密한 데가 없고 作爲와 方向이 없으므로 自然을 죽여 버리는 지나친 加工에서의 過誤는 찾아 볼 수 없다.

本島는 良木의 原材가 豊富하고 島民性은 自主的이고 剛健하지만 柔順하고 陋鄙하여 技巧的인데가 없으므로 自然의 美를 最大로 利用한 餘裕과 따뜻함이 있는 自然美가 含蓄된 民具라 하여 無理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作品 하나 하나가 다 誠實하고 正直하여 명칭한 德性을 가지고 있으므로 神經이 날카로움과 같은 拒否症이 없어 늘 함께하여도 마음이 편한 自然主義의 古拙 質朴한 木物이라 하겠다.

<Summary>

A Study on Wooden Objects of Je Ju Island

—With an emphasis on Gui and Nam Bang Ae of Je Ju—

by Moon Ki Sun
Yang chang Bo

The island of Jeju, being an isolated island constantly raided and torn from communication under the shamefully oppressed history that mingled sorrow and tears with conditions of barren soil and unseasonable weather, was given wood, a gift from nature plentiful in its bounty, from which the people produced their necessities of life.

The wooden objects of the island of Jeju mingle the natural environment with the history and geography of the island. These public instruments having a distinct cultural appearance, these crystals of the life experience that gradually developed and improved under foreign influence take no one aspect from the traditional culture of Jeju. However, the people of Jeju are autonomous and strong in character. They appear submissive and little skilled, but their public instruments contain great composure, with the beauty and mildness of nature. Each of the public instruments has a natural character of its own, sincere, honest, humble, and lovely, a part of the people on Jeju for they live with us.